

장애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의 긍정적 적응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분석

이 미 숙*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 요 약 》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양육에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이해하고,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조부모들의 긍정적 적응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82명의 장애아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PSI/SF 한국어 번역을 통해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부모관련 변인으로는, 조부모의 배우자 동거여부, 교육정도,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 주당 양육시간이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관련 변인으로는, 손자녀의 통합교육 여부, 장애등급, 의사소통수단이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여 조부모들의 긍정적 적응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지 제공, 손자녀의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증대, 통합교육의 확대, 그리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장애아동, 조부모, 긍정적 적응, 양육 스트레스

* 교신저자(mslee@uu.ac.kr)

I. 서 론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장애아동 가족이 장애아동을 가진 상황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응해 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Bennett & DeLuca, 1996; Sandler & Mistretta, 1998; Singer et al., 1993; Stainton & Besser, 1998).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아동 가족들이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 및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장애아동 가족으로서의 적응(ada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적응(ada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적응(adjustment)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져 왔다(Buehler, 1990). Castro(2003)는 적응(ada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건강한 정신건강(good mental health)에 대한 긍정적 이해(positive sense)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장애아동을 둔 상황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만족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ongoing)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적응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Bennett & DeLuca, 1996), 이 적응은 장애아동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초기의 단계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모든 발달 단계에 적용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장애아 가족 구성원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또 다른 적응 노력들이 요구되어지며, 각 발달 단계의 특성에 적합한 가족구성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Lustig(1997)는 적응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족의 능력과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Krauss(1993)는 양육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양육자의 적응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은 양육자가 특정 상황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낮은 스트레스 수준은 특정 상황에 대해 양육자가 긍정적인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rauss는 또한 장애아동의 유아기 시기의 안정성 경향과 부모 적응의 변화 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이용하여, 장애유아가 얼마나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부모 및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모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적응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하

나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서 나타나는 양육 스트레스나 적응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아동의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또는 문제행동의 여부 등과 같은 장애아동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Dyson, 1996; Hanson & Hanline, 1990; Hassall, Rose, & McDonald, 2005; Sivberg, 2002; Tomanik, Harris, & Hawkins, 2004; Troster, 2001). 또한 양육자의 적응은 양육자의 내적 특성,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 자아존중감, 또는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되어 진다고 하였다(Fallon & Russo, 2003; Hassall et al., 2005; Todis & Singer, 1991). 비록 양육자의 내적 특성이 장애아동을 가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양육자의 적응에 더욱 중요한 요인은 바로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원의 이용 가능성이라 하겠다. 흥미롭게도, 많은 연구들은 양육자를 위한 지원의 이용가능성이 양육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Beck, Hastings, Daley, & Stevenson, 2004; Bowen, Orthner, & Zimmerman, 1993; Boyd, 2002; Hanson & Hanline, 1990; Hassall et al., 2005). 비록 연구들마다 다른 연구 대상자 및 연구 도구로 인하여 다소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위의 이러한 요인들은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영향 요인으로 종종 보고되어 왔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를 맡아 양육해줄 적합한 기관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아동의 가정에서는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또는 취업하지는 않았지만 장애 자녀 이외의 또 다른 자녀가 있어 이들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장애자녀나 비장애 자녀를 일정 시간이나 어느 일정 시기 동안 맡아줄 기관이나 사람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경우 조부모들이 아동의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아동의 양육에 참여하게 된다. 김은주와 서영희(2007)는 통계청(2001)의 결과를 인용하여 자녀 양육 실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1~2세는 78.3%, 3~4세는 44.4%, 5~6세는 16.0%로 자녀 양육에 조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은주와 서영희(2007)는 그들의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을 통해 조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들은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손자녀를 돌보아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들과의 내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언급하였다. 양육에 있어서의 신체적 스트레스로는 점점 나빠지는 건강상태, 집안 가사일과 육아에 대한 이중고, 그리고 건강증과 피곤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부모들의 스트레스에 토대해 볼 때, 장애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이러한 비장애 조부모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장애 손자녀로 인해 경험하게 될 특별한 또는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또 어떠한 변인들이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를 지닌 손자녀의 양육에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장애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러한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아동의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와 관련된 것이었다. 물론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조부모들은 아동의 부모와 함께 장애아동의 양육에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아동의 공동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아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제는 바로 장애아 조부모의 장애 손자녀에 대한 적응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아 조부모가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이들이 장애 손자녀를 둔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해 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아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분석을 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긍정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아 조부모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에 따라 장애아동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긍정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련 변인은 조부모 관련 변인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자녀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 관련 변인을 파악한다.

둘째, 장애아동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손자녀 관련 변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장애등급이 1, 2, 3등급에 속하는 중도장애아동의 조부모로 손자녀의 양육에 부분적(part-time caregiving) 또는 전반적(full-time caregiving)으로 참여하고 있는 8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82명의 조부모들은 장애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를 도와 양육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부모와 함께 공동양육자로서 전반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을 의미한다. <표 1>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정보와 <표 2>에서는 손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 척도/간단형(PSI/S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을 장애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실시하였다. PSI/SF는 세 개의 하위요인을 가지는데 이는 양육에 따른 정신적 고통(PD; Parental Distress), 부모-아동의 비기능적 상호작용(P-CDI;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그리고 어려운 아이(DC; Difficult Child)를 포함한다. PD는 양육의 결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개인적 수준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의 형태로는 양육 자신감에 대한 약화된 감정,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 배우자와의 의견에 있어 불일치,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 고민이나 걱정을 포함한다(Abidin, 1995). P-CDI는 아동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부모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유효하게(validating)하지 못할 때 부모가 경험하는 감정을 의미한다(Abidin, 1995). 이러한 감정들은 부모의 삶에 있어 아동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부모가 아동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이러한 감정들의 일반적인 묘사는 부모가 아동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아동으로부터 부모가 거절당한다는 느낌, 아동에 대한

실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C는 아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쉽거나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기본 행동 특징들을 규정하는 것이다(Abidin, 1995). 이러한 행동 특징 들로는 아동의 기질적인 성격이나 성질들로 종종 특징 지워지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학습된 저항, 반항, 요구가 많은 행동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SI/SF의 한국어 번역은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PSI 한국어 번역(Cho, 2006)으로부터 35개 문항이 사용된 것으로, PSI/SF 한국어 번역 또한 PSI 한국어 번역에 기준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PSI/SF 한국어 번역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동의하지 않음 (2)’, ‘잘 모르겠음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이라는 5단계 라이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결과의 낮은 점수는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높은 점수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또한 조부모가 본 척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문항에서 ‘아동’ 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손자(녀)’ 로 수정하여 조부모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조부모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빈도	%
성별	남자(할아버지)	15	18.3
	여자(할머니)	67	81.7
연령	50대	12	14.6
	60대	39	47.6
	70대	31	37.8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	47.6
	중학교 졸업	19	23.2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	29.3
배우자 동거여부	배우자와 함께 거주	46	58.2
	별거중이거나 사별	33	41.8
고용상태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	11	13.4
	퇴직 또는 미고용	69	86.3
월소득	100만원 미만	16	22.2
	100 ~ 200만원	36	50.0
	200만원 이상	20	27.8
종교유무	있음	65	79.3
	없음	17	20.7
손자녀와의 관계	친조부모	44	53.7
	외조부모	38	46.3

	변인	빈도	%
손자녀와 가정과의 이동거리	함께 산다	20	24.4
	30분 미만 거리	40	48.8
	30분 이상 거리	22	26.8
주당 양육시간	5시간 이하	33	40.2
	6 ~ 20시간	17	20.7
	21 ~ 40시간	13	15.9
	41시간 이상	19	23.2

<표 2> 손자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빈도	%
성별	남자(손자)	43	52.4
	여자(손녀)	39	47.6
연령	8세 미만	22	26.8
	8 ~ 10세	43	52.4
	11 ~ 13세	17	20.7
장애유형	정신지체	25	30.5
	지체장애	33	40.2
	정서행동장애	6	7.3
	자폐성장애	11	13.4
	발달지체	7	8.5
장애등급	1급	52	67.5
	2급	15	19.5
	3급	10	13.0
의사소통수단	구두 의사소통 가능	8	9.8
	제한된 구두표현	51	62.2
	몸짓만 가능	11	13.4
	의사소통 안됨	12	14.6
통합교육 여부	일반 유치원 또는 학교(통합)	12	15.0
	특수 유치원 또는 학교(비통합)	68	85.0

본 연구의 수행에 앞서 PSI/SF 한국어 번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내적신뢰도(internal 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주성분요인분석(PCFA; 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은 검사 도구의 타당성과 요인 부하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에 앞서 연구 자료가 요인분석을 위해 적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를 사용하였다. PSI/SF 한국어 번역에서 조부모 응답에 대한 KMO의 점수는 .785로 나타났다. Approximate chi-square of Bartlett's test 점수는 3646.302이며 sphericity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p < .0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PSI/SF 한국어 번역이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SI/SF 한국어 번역의 36개 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여 3개 요인의 주성분분석의 48.0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단지 한 개의 문항(배우자와의 관계 관련 문항)만이 .40보다 적은 부하값을 나타내었다. PSI/SF 한국어 번역의 내적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는 PSI/SF 한국어 번역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내적신뢰도 계수는 PSI/SF 한국어 번역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장애아동 관련 단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아동 조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연구 참여자가 선정된 이후, 연구 참여자의 선호도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주소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 설문지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설문지를 전달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함께 배부하였는데, 연구 참여 동의서는 2가지 종류로 개발되었다. 한 가지는 조부모 본인이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기가 가능한 경우로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한 가지는 조부모 스스로가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독자를 두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조부모 본인의 서명과 대독자의 서명을 함께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141부가 조부모에게 배부되었으며, 이중 회수된 비율은 60.99%(86부)였다. 회수된 설문지 86부 중에서 4부의 설문지가 응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설문문항의 일부만을 응답한 것들이었다. 이 4부의 설문지는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용 가능한 설문지(응답이 완료된 설문지)의 비율은 58.16%(82부)로 나타났다.

4. 자료 처리

수거된 설문지중 통계 프로그램 입력이 가능한 82부 설문지에 대해서 SPSS 통계 프로그램에 그 결과를 입력하였다.

1) 자료 확인(data screening)

자료의 입력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응답 및 PSI/SF 응답을 확인하였다. 미기재 자료(missing data)는 변인들의 수(frequencies)를 확인함으로써 미기재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잘못된 수치들은 설문지의 응답과 비교하여 수정되었다. SPSS 통계 프로그램 입력 후 설문조사의 수치 범위를 벗어나는 응답들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PSI/SF는 5단계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5보다 큰 점수를 가진 응답은 설문지와 직접 비교하여 확인 후 수정하였다.

2)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통계 처리를 시작하기 전, 사용하고자 하는 추론적 분석의 가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정규분포(normality)와 분산의 동일성(equal variance assessment)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Shapiro-Wilk test의 유의도 값과 Levene's test의 유의도 값의 결과가 추후 사용될 통계분석방법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이후,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학적 분석(descriptive statistics) 및 연구 문제에 대한 추론적 분석(inferential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먼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기에 앞서, 장애아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며, 이는 조부모의 PSI/SF 각 하위요인과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표 3>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 수준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PD (Parental Distress)	2.60 (.81)
P-CDI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2.46 (.85)
DC (Difficult Child)	3.10 (.68)
PSI/S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2.72 (.67)

<표 3>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전체 PSI/SF의 평균 점수는 2.72(SD=.67)로 나타났다. 조부모들은 DC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M=3.10, SD=.68), 그 다음이 PD(M=2.60, SD=.81), 그리고 P-CDI(M=2.46, SD=.8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SI/SF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조부모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DC 요인에서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Abidin(1995)은 DC 요인이 아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쉽거나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기본 행동 특징들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조부모들은 장애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르는 정신적 고통이나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도, 손자녀의 문제행동을 다루는데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DC 요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조부모가 장애 손자녀의 문제 행동 등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조부모 관련 변인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조부모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부모의 성별, 배우자 동거여부, 고용상태, 종교유무, 손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으며, 조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월소득,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 주당 양육시간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부모의 성별, 고용상태, 종교유무, 손자녀와의 관계, 월소득은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우자 동거여부, 연령, 교육정도,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 주당양육시간은 전체 PSI/SF 또는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1) 배우자 동거여부

배우자 동거여부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PSI/SF점수에서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에서는 PD와 P-CDI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인 반면, DC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생활할 경우 손자녀의 양육을 함께 분담할 수 있고 심리 정서적인 위안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낮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동거여부가 손자녀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동거여부보다도 손자녀의 문제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여부가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에 관련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조부모 관련 변인

변인		빈도	평균(M)	표준편차(SD)	t	p	
성별	PD	남자(할아버지)	15	2.25	.89	-1.855	.067
		여자(할머니)	67	2.68	.78		
	P-CDI	남자(할아버지)	15	2.31	1.05	-.628	.538
		여자(할머니)	67	2.49	.80		
	DC	남자(할아버지)	15	3.05	.58	-.278	.781
		여자(할머니)	67	3.11	.71		
PSI/SF	남자(할아버지)	15	2.54	.78	-1.137	.258	
	여자(할머니)	67	2.76	.63			
배우자 동거 여부	PD	배우자와 함께 거주	46	2.28	.72	-4.008	.000***
		별거중이거나 사별	33	2.96	.76		
	P-CDI	배우자와 함께 거주	46	2.21	.75	-2.833	.006**
		별거중이거나 사별	33	2.74	.90		
	DC	배우자와 함께 거주	46	3.10	.73	.097	.923
		별거중이거나 사별	33	3.08	.66		
	PSI/SF	배우자와 함께 거주	46	2.53	.62	-2.667	.009**
		별거중이거나 사별	33	2.92	.65		

변인		빈도	평균(M)	표준편차(SD)	t	p	
고용 상태	PD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	11	2.83	.85	.993	.324
		퇴직/고용되어 있지 않음	69	2.56	.81		
	P-CDI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	11	2.77	.82	1.298	.198
		퇴직/고용되어 있지 않음	69	2.41	.86		
	DC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	11	3.21	.60	.600	.550
		퇴직/고용되어 있지 않음	69	3.07	.71		
	PSI/SF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	11	2.93	.68	1.157	.251
		퇴직/고용되어 있지 않음	69	2.68	.66		
종교 유무	PD	있음	65	2.55	.80	-1.130	.262
		없음	17	2.80	.84		
	P-CDI	있음	65	2.40	.81	-1.281	.204
		없음	17	2.70	.96		
	DC	있음	65	3.00	.67	-2.096	.055
		없음	17	3.46	.65		
	PSI/SF	있음	65	2.64	.62	-1.920	.058
		없음	17	2.99	.76		
손자녀 와의 관계	PD	친조부모	44	2.47	.82	-1.538	.128
		외조부모	38	2.75	.78		
	P-CDI	친조부모	44	2.34	.77	-1.340	.184
		외조부모	38	2.60	.93		
	DC	친조부모	44	3.09	.61	-.136	.892
		외조부모	38	3.11	.77		
	PSI/SF	친조부모	44	2.63	.59	-1.199	.234
		외조부모	38	2.81	.72		

p<.01, *p<.001

<표 5>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조부모 관련 변인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post-hoc	
연령	PD	50대	12	2.56	1.01	3.763	.027*	60대 < 70대
		60대	39	2.38	.72			
		70대	31	2.90	.78			
	P-CDI	50대	12	2.56	.64	6.427	.003**	60대 < 70대
		60대	39	2.38	.79			
		70대	31	2.90	.85			
	DC	50대	12	22.29	.48	1.869	.161	
		60대	39	2.19	.76			
		70대	31	2.87	.63			
	PSI/SF	50대	12	3.00	.58	1.947	.149	
		60대	39	3.25	.67			
		70대	31	2.94	.65			
교육 정도	PD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	2.96	.66	9.888	.000***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19	2.10	.47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	2.40	.98			
	P-CDI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	2.82	.81	7.763	.001**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19	2.13	.71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	2.13	.80			
	DC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	3.23	.62	1.448	.241	
		중학교 졸업	19	2.95	.91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	2.99	.55			
	PSI/SF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	3.00	.59	8.121	.001**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19	2.40	.59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	2.51	.65			
월소득	PD	100만원 미만	16	2.67	.93	1.731	.185	
		100 ~ 200만원	36	2.75	.74			
		200만원 이상	20	2.32	.87			
	P-CDI	100만원 미만	16	2.92	1.01	2.704	.051	
		100 ~ 200만원	36	2.49	.79			
		200만원 이상	20	2.06	.72			
	DC	100만원 미만	16	3.32	.88	1.153	.322	
		100 ~ 200만원	36	3.08	.59			
		200만원 이상	20	2.99	.57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post-hoc	
월소득	PSI/SF	100만원 미만	16	2.97	.84	3.038	.054	
		100 ~ 200만원	36	2.77	.58			
		200만원 이상	20	2.45	.60			
손자녀 가정 과의 이동 거리	PD	함께 산다	20	3.19	.72	16.517	.000***	함께 산다 > 30분 이상 30분 미만 > 30분 이상
		30분 미만 거리	40	2.65	.75			
		30분 이상 거리	22	1.96	.52			
	P-CDI	함께 산다	20	2.88	.58	8.486	.000***	함께 산다 > 30분 미만 거리 함께 산다 > 30분 이상 거리 30분 미만 > 30분 이상
		30분 미만 거리	40	2.55	.93			
		30분 이상 거리	22	1.91	.61			
	DC	함께 산다	20	3.25	.31	4.236	.018*	함께 산다 > 30분 이상. 30분 미만 > 30분 이상
		30분 미만 거리	40	3.16	.77			
		30분 이상 거리	22	2.75	.67			
	PSI/SF	함께 산다	20	3.07	.41	12.504	.000***	함께 산다 > 30분 이상 30분 미만 > 30분 이상
		30분 미만 거리	40	2.82	.69			
		30분 이상 거리	22	2.21	.49			
주당 양육 시간	PD	5시간 이하	33	2.33	.79	10.780	.000***	5시간 이하 < 41시간 이상 6 ~ 20시간 < 41시간 이상 21 ~ 40시간 < 41시간 이상
		6 ~ 20시간	17	2.41	.69			
		21 ~ 40시간	13	2.36	.59			
		41시간 이상	19	3.40	.56			
	P-CDI	5시간 이하	33	2.25	.94	6.658	.000***	5시간 이하 < 41시간 이상 6 ~ 20시간 < 41시간 이상 21 ~ 40시간 < 41시간 이상
		6 ~ 20시간	17	2.41	.75			
		21 ~ 40시간	13	2.08	.60			
		41시간 이상	19	3.14	.52			
	DC	5시간 이하	33	3.00	.80	1.921	.133	
		6 ~ 20시간	17	2.90	.39			
		21 ~ 40시간	13	3.17	.83			
		41시간 이상	19	3.39	.46			
	PSI/SF	5시간 이하	33	2.52	.75	8.338	.000***	5시간 이하 < 41시간 이상 6 ~ 20시간 < 41시간 이상 21 ~ 40시간 < 41시간 이상
		6 ~ 20시간	17	2.57	.46			
		21 ~ 40시간	13	2.53	.52			
		41시간 이상	19	3.31	.35			

*p<.05, **p<.01, ***p<.001

2) 연령

조부모 연령 간에는 전체 PSI/SF와 DC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PD와 P-CDI 요인에서는 60대의 조부모가 70대의 조부모보다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대의 조부모가 70대의 조부모에 비해 건강상의 측면에서 보다 양호할 수 있으므로, 60대가 경험하는 양육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과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비가능성은 70대가 경험하는 것보다 낮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조부모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의 문제를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므로 조부모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

3) 교육정도

조부모의 교육정도와 관련하여, 전체 PSI/SF, PD, P-CDI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PSI/SF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들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D나 P-CDI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상호관계를 맺는데 있어서도 다른 조부모들에 비해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들의 DC 점수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의 DC 점수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학력의 높고 낮음은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와 관련하여,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전체 PSI/SF, PD, P-CDI, DC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먼저 전체 PSI/SF와 관련하여,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가 30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분 미만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들의 경우 30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들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가 장애 손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우 그렇지 않은 조부모들에 비해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D와 DC 요인의 경우도 전체 양육 스트레스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DC의 경우 손자녀 가정과 함께 살거나 30분 미만의 이동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30분 이상의 이동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DC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 가정과 함께 살거나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가 손자녀의 문제행동을 직접 경험하게 될 기회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조부모들이 겪는 DC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P-CDI의 경우는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가 30분 미만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 그리고 30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보다도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분 미만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가 30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P-CDI의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30분 미만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30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순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5) 주당 양육시간

주당 양육시간과 관련하여, 전체 PSI/SF, PD, P-CDI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체 PSI/SF, PD, P-CDI 요인에서 5시간 이하의 양육시간을 가진 조부모가 41시간 이상의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에 비해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내었으며, 6 ~ 20시간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경우도 41시간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보다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또한 21 ~ 40시간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들도 41시간 이상을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들 보다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양육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DC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주당 양육시간과 양육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당 양육시간에 따라 어려운 아동(DC)이라는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주당 양육시간 보다도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나 강도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손자녀 관련 변인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손자녀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자녀의 성별과 통합교육 여부에 대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고, 손자녀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손자녀의 성별과 연령은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통합교육 여부, 장애종류, 장애등급, 의사소통 수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1) 통합교육 여부

손자녀가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PSI/SF 점수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서는 PD와 P-CDI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손자녀를 둔 조부모가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애의 정도가 보다 경도일 가능성이 많으며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다 낮게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DC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보다는 손자녀에게 문제행동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 스트레스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6>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손자녀 관련 변인

		특징(변인)	빈도	평균(M)	표준편차(SD)	t	p
성별	PD	남자(손자)	43	2.63	.84	.385	.701
		여자(손녀)	39	2.56	.78		
	P-CDI	남자(손자)	43	2.55	.77	.944	.348
		여자(손녀)	39	2.37	.93		
	DC	남자(손자)	43	3.12	.71	.374	.709
		여자(손녀)	39	3.07	.66		
PSI/SF	남자(손자)	43	2.76	.66	.668	.506	
	여자(손녀)	39	2.66	.67			
통합교육 여부	PD	일반 유치원 또는 학교(통합)	12	2.07	.64	-2.604	.011*
		특수 유치원 또는 학교(비통합)	68	2.71	.81		
	P-CDI	일반 유치원 또는 학교(통합)	12	1.88	.59	-3.417	.003**
		특수 유치원 또는 학교(비통합)	68	2.57	.86		
	DC	일반 유치원 또는 학교(통합)	12	2.90	.46	-1.115	.268
		특수 유치원 또는 학교(비통합)	68	3.15	.72		
	PSI/SF	일반 유치원 또는 학교(통합)	12	2.29	.43	-3.401	.014*
		특수 유치원 또는 학교(비통합)	68	2.81	.67		

*p<.05, **p<.01

<표 7> 장애아동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손자녀 관련 변인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post-hoc	
연령	PD	8세 미만	22	2.61	.76	.060	.942	
		8 ~ 10세	43	2.57	.90			
		11 ~ 13세	17	2.65	.68			
	P-CDI	8세 미만	22	2.47	.80	.786	.459	
		8 ~ 10세	43	2.37	.89			
		11 ~ 13세	17	2.68	.81			
	DC	8세 미만	22	3.00	.47	1.168	.316	
		8 ~ 10세	43	3.06	.64			
		11 ~ 13세	17	3.32	.97			
	PSI/SF	8세 미만	22	2.69	.60	.656	.522	
		8 ~ 10세	43	2.66	.67			
		11 ~ 13세	17	2.88	.72			
장애 유형	PD	정신지체(정신)	25	2.26	.86	2.029	.099	
		지체장애(지체)	33	2.67	.64			
		정서행동장애(정서)	6	2.54	.93			
		자폐성장애(자폐)	7	2.96	.73			
		발달지체(발달)	11	2.84	1.01			
	P-CDI	정신지체(정신)	25	2.21	.89	2.006	.102	
		지체장애(지체)	33	2.46	.71			
		정서행동장애(정서)	6	2.38	.90			
		자폐성장애(자폐)	7	2.48	.69			
		발달지체(발달)	11	3.06	1.05			
	DC	정신지체(정신)	25	3.03	.69	3.750	.008**	
		지체장애(지체)	33	2.89	.74			
		정서행동장애(정서)	6	3.93	.61			
		자폐성장애(자폐)	7	3.25	.19			
		발달지체(발달)	11	3.31	.32			
	PSI/SF	정신지체(정신)	25	2.50	.72	2.059	.094	
		지체장애(지체)	33	2.67	.59			
		정서행동장애(정서)	6	2.94	.77			
		자폐성장애(자폐)	7	2.88	.45			
		발달지체(발달)	11	3.11	.64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post-hoc
장애 등급	PD	1급	52	2.68	.75	3.353	.040*	1급 > 3급
		2급	15	2.61	1.06			
		3급	10	1.98	.31			
	P-CDI	1급	52	2.55	.86	4.615	.013*	1급 > 3급 2급 > 3급
		2급	15	2.59	.93			
		3급	10	1.71	.28			
	DC	1급	52	3.12	.72	.556	.576	
		2급	15	3.07	.67			
		3급	10	2.87	.37			
	PSI/SF	1급	52	2.78	.64	3.508	.035*	1급 > 3급
		2급	15	2.75	.80			
		3급	10	2.20	.21			
의사 소통 수단	PD	구두 의사소통 가능(구두)	8	2.09	.23	6.829	.000***	구두 < 몸짓 제한 < 몸짓 몸짓 > 안됨
		제한된 구두표현(제한)	51	2.62	.83			
		몸짓만 가능(몸짓)	11	3.37	.79			
		의사소통 안됨(안됨)	12	2.13	.36			
	P-CDI	구두 의사소통 가능(구두)	8	1.83	.15	4.765	.004**	구두 < 몸짓 몸짓 > 안됨
		제한된 구두표현(제한)	51	2.51	.79			
		몸짓만 가능(몸짓)	11	3.08	1.06			
		의사소통 안됨(안됨)	12	2.09	.80			
	DC	구두 의사소통 가능(구두)	8	2.79	.36	.732	.536	
		제한된 구두표현(제한)	51	3.16	.72			
		몸짓만 가능(몸짓)	11	3.11	.92			
		의사소통 안됨(안됨)	12	3.02	.41			
	PSI/SF	구두 의사소통 가능(구두)	8	2.25	.20	4.735	.004**	구두 < 몸짓 몸짓 > 안됨
		제한된 구두표현(제한)	51	2.76	.64			
		몸짓만 가능(몸짓)	11	3.20	.85			
		의사소통 안됨(안됨)	12	2.40	.40			

* $p < .05$, ** $p < .01$, *** $p < .001$

2) 장애유형

장애유형과 관련하여,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발달지체의 다섯 가지 장애유형 분류에서 전체 PSI/SF, PD, P-CDI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DC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정서행동장애 손자녀를 둔 조부모가 정신지체 손자녀를 둔 조부모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정서행동장애 조부모들은 지체장애 손자녀를 둔 조부모보다도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었다. DC의 평균점수를 비교 하였을 때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조부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발달지체, 자폐성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과적으로 손자녀의 장애가 정서행동장애인 경우 지체장애나 정신지체 손자녀를 둔 경우보다 이들이 손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더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장애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들이 조부모들이 경험하는 DC 요인과 관련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3) 장애등급

손자녀의 장애 등급과 관련하여서, 전체 PSI/SF, PD, P-CDI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 PSI/SF의 경우 손자녀의 장애가 1급인 경우 손자녀의 장애가 3급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D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자녀의 장애가 1급인 경우가 손자녀의 장애가 3급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P-CDI의 경우도 손자녀의 장애가 1급인 경우 손자녀의 장애가 3급인 경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또 손자녀의 장애가 2급인 경우 손자녀의 장애가 3급인 경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전반적으로 손자녀의 장애가 중도인 경우 조부모들은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자녀의 장애가 중도일수록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을 보다 많이 느끼게 되고, 손자녀와 상호작용을 맺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의사소통 수단

의사소통 수단과 관련하여, 전체 PSI/SF, PD, P-CDI 에서는 손자녀의 의사소통수단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 PSI/SF의 경우, 손자녀가 의사소통 수단으로 몸짓만 가능한 경우의 조부모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손자녀를 둔 조부모보다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몸짓만 가능한 손자녀를 둔 조부모의 경우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손자녀를

둔 조부모에 비해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D의 경우는 몸짓만 가능한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구두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손자녀, 제한된 구두표현이 가능한 손자녀, 그리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손자녀를 둔 조부모보다도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CDI의 경우도 몸짓만 가능한 손자녀를 둔 조부모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손자녀를 둔 조부모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몸짓만 가능한 손자녀의 조부모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손자녀를 둔 조부모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즉, 몸짓만 사용하는 경우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그리고 몸짓만 사용하는 경우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조부모가 의사소통의 시도를 포기하겠지만, 몸짓만 나타내는 경우 손자녀가 나타내는 그 몸짓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의사소통 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조부모들은 장애 손자녀를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이나 자신들의 적응(adaptation)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장애 손자녀를 두었다는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응해 가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 조부모를 위한 지원은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긍정적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조부모에 대한 지원은 가족 내부로부터의 지원과 가족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Fallon & Russo, 2003; Fujiura & Yamaki, 2000; Taylor et al., 2005), 가족, 친구,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족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써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Bowen et al., 1993; Boyd, 2002; Hanson & Hanline, 1990; Hassall et al., 2005; Todis & Singer, 1991). 따라서 전문가들은 조부모들의 긍정적 적응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변인들을 토대로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나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아동 조부모의 전체 양육 스트레스(PSI/SF)에 대한 조부모 변인들로는 배우자 동거여부, 교육정도,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 주당 양육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손자녀 관련 변인으로는 통합교육 여부, 장애등급, 의사소통 수단이 전체 양육스트레스(PSI/SF)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한 사항은, 전체 양육스트레스(PSI/SF)와 특정 변인이 유의미하다고 나타난 경우, 그 하위요인인 PD와 P-CDI에서는 함께 유의미하다고 나타난 반면, DC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부모 관련 변인들 중에서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를 제외한 배우자 동거여부, 교육정도, 주당양육시간에서 DC를 제외한 전체 PSI/SF, PD, P-CDI 에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 전체 PSI/SF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PD, P-CDI, DC의 정의나 특성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DC는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문제행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동거여부, 교육정도, 주당양육시간 변인들이 손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스트레스와는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부족하며, 조부모 관련 변인들 중에서 DC 요인과 관련 있는 변인은 ‘손자녀 가정과의 이동거리’였다. 즉,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DC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이는 손자녀와 함께 사는 조부모들이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들보다 손자녀의 문제행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말미암아 자신의 손자녀를 다루기 힘든 어려운 아이라고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조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손자녀 관련 변인에서도 특별히 DC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이 존재한다. 손자녀 관련 변인에서는, 통합교육 여부, 장애등급, 의사소통 수단은 DC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장애유형에서는 DC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정신지체나 지체장애를 지닌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보다 손자녀의 행동에 대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장애유형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서행동장애아동들이 정신지체나 지체장애아동들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서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이 이들이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른 장애유형으로 진단받은 아동들보다도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전체 PSI/SF, PD, P-CDI의 하위요인에 대한 결과에서는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는데, DC의 결과는 나머지 하위요인들과 다른 결과들을 주로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전체 양육 스트레스 및 그 하위요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체 양육스트레스나 두 가지의 하위요인, 즉 PD와 P-CDI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이 DC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들이 인식하는 어려운 아동(DC)이라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이 DC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행동수정과 관련된 간단한 워크샵 등의 경험 유무가 이러한 DC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경감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들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다루기에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원인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추후 연구에서는 어려운 아동(DC)이라는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관련된 변인을 찾아내어 이러한 DC 요인 관련 스트레스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적응의 문제는 바로 장애아동 가족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강점 및 대처 능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 손자녀의 삶의 단계에 잘 적응되어 있는(well-adapted) 조부모들은 손자녀와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 나아가 손자녀의 교육 및 발달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부모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긍정적 적응 확대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의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아동의 양육을 분담하거나 조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의 배우자 동거여부가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므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들이 서로 손자녀의 양육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지지나 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부모들에게 장애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그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육정도와 관련하여서, 학력이 낮은 조부모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나타내었는데, 조부모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숙(2008, 2009)은 장애아동의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의 장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손자녀들을 돌보는 자신들의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부모들에게 손자녀의 장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때 조부모들의 교육정도나 수준을 이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조부모는 물론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손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아동의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들을 위한 휴식지원(respite)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조부모와 부모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휴식지원(respite) 프로그램은 조부모 및 부모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하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심리적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휴식을 얻어 아동에 대한 양육이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넷째, 장애아동이 지역사회내의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손자녀가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하여, 이는 조부모들이 손자녀가 통합된 환경에서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분리된 교육이나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더 선호함으로 말미암아 통합되지 않은 교육환경에 배치된 것 보다 더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개별 장애아동의 가족에 적합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의 장애등급과 관련해서는 보다 중도인 경우 조부모들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으므로, 중도의 장애를 지닌 손자녀를 둔 조부모들에 대한 보다 특별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애를 지닌 손자녀의 조부모들이 특별히 손자녀의 장애와 관련하여 조부모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가족지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구어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의 경우 조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을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두로 의사표현이 가능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보다도 몸짓을 이용하는 경우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짓만으로는 조부모들이 손자녀가 의도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거나, 구두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불편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아동에게 적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부모들에게도 이러한 보완·대체의사소통방법들을 이해하게 하여,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적합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장애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긍정적 적응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결국 장애아동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강화된 가족 기능을 통하여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근래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역할을 고려하고, 이들의 긍정적 적응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발달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주, 서영희 (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이미숙 (2008). Grandparent involvement and support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ies: Parents' perceptions.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1(2), 73-93.
- 이미숙 (2009). 중증 장애아 조부모의 경험 및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4), 113-133.
- 통계청 (2001).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http://www.nso.go.kr/>).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Beck, A., Hastings, R. P., Daley, D., & Stevenson, J. (2004). Pro-social behavior and behavior problems independently predict maternal stress.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9(4), 339-349.
- Bennett, T., & DeLuca, D. A. (1996).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ositive adaptation across the life cycle. *Social Work in Education*, 18(1), 31-45.
- Bowen, G. L., Orthner, D. K., & Zimmerman, L. I. (1993). Family adaptation of single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rmy: An empirical analysis of work stressors and adaptive resources. *Family Relations*, 42, 293-304.
- Boyd, B. A. (2002).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ack of social support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4), 208-215.
- Buehler, C. (1990). Adjustment. In J. Touliatos, B. F. Perlmutter, & M. A. Straus (Eds.),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pp. 493-51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ho, S. J. (2006, April).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Korean Translat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Paper presented at the CEC annual convention. Salt Lake City, Utah.
- Dyson, L. L. (1996). The experiences of familie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Parental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ibling self-concept.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9(3), 280-286.
- Fallon, M. A., & Russo, T. J. (2003). Adaptation to stress: An investigation into the lives of United States military family with a child who is disable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0(3), 193-198.
- Fujira, G. T., & Yamaki, K. (2000). Trends in demography of childhood poverty and disability. *Exceptional Children*, 66, 187-199.

- Hanson, M. J., & Hanline, M. F. (1990). Paren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4*(3), 234-248.
- Hassall, R., Rose, J., & McDonald, J. (2005).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effects of parental cognition in relation to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6), 405-418.
- Krauss, M. W. (1993, March). *Stability and change in the adaptation of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 Lustig, D. C. (1997). Families with an adult with mental retardation: Empirical family typolog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1*(2), 138-157.
- Sandler, A. G., & Mistretta, L. A. (1998). Positive adaptation in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2), 123-130.
- Singer, G. H. S., Irvin, L. H., Irvine, B., Hawkins, N. E., Hegreness, J., & Jackson, R. (1993). Helping families adapt positively to disability: Overcoming demoralization through community supports. In G. H. S. Singer & L. E. Powers (Eds.),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Active coping skills and strategies for family interventions* (pp. 67-83). Baltimore: Paul H. Brookes.
- Sivberg, B. (2002). Family system and coping behaviors: A comparison betwee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and parents with non-autistic children. *Autis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6*(2), 397-409.
- Stainton, T., & Besser, H. (1998). The positive impact of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on the famil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3*(1), 57-70.
- Taylor, N. E., Wall, S. M., Liebow, H., Sabatino, C. A., Timberlake, E. M., & Farber, M. Z. (2005). Mother and soldier: Rais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in a low-income military family. *Exceptional Children, 72*(1), 83-99.
- Todis, B., & Singer, G. (1991). Stress and stress management in families with adopted children who have sever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6*(1), 3-13.
- Tomanik, S., Harris, G. E., & Hawkins,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s exhibited by children with autism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9*(1), 16-26.
- Troster, H. (2001). Sources of stress in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5*(10), 623-637.

The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of Grandparents
Caregi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heir Positive Adaptation

Lee, Misuk

Uiduk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ing stress of the grandparents who caregive their grand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study also considered the ways of increasing positive adaptation as well as decreasing the parenting stress. The study included 82 grandparents who are caregiving their grand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ies for a part-time or full-time. The grandparent participants responded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As the results, the study revealed the marriage status, educational level, distance from their grandchild, and caregiving time as the variables related to grandpar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well,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grandchildren included a placement of school, a severity of disability, and a way of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udy suggested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grandparents,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ir grandchild's disability, increase of the respite program, extens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 and enlargement of th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to decrease grandparents' parenting stress and increase their positive adaptation.

Key Words

: parenting stress, grandparen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positive adaptation

논문 접수: 2010. 04. 29 심사 시작: 2010. 05. 10 게재 확정: 2010. 06. 16

